

日 아소산 분화



14일 오전 9시43분께 일본 남부 규슈섬 아소산에서 화산이 분화. 거대한 검은 재 구름이 2000m 높이 상공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다. /연합뉴스

연기 높이 2000m...경계수위 '3' 입산 통제

14일 일본 구마모토(熊本)현 아소산(阿蘇山)이 분화했다고 일본 기상청이 밝혔다. 일본 기상청은 아소산에서 오전 9시 43분 분화가 발생했다고 전하고 '분화 속보'를 발령했다. 분화 속보는 특정 화산에서 기존 분화 규모를 상회하는 분화가 발생했을 때 발표하는 것이다. 분화로 인해 연기(분연)가 화구로부터 2000m 상공까지 치솟았고 화구 주변에 분석(화산 분화시 화구에서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돌)이 날아 다니고 있

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보도했다. 일본 기상청은 분화 경계 수위를 '화구 주변 진입 규제'를 의미하는 '2'에서 '입산규제'를 의미하는 '3'으로 올렸다. 현지 당국은 주민 등에게 안전을 확보하고 향후 정보에 주의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등산객의 피난을 유도했다. 교도통신은 구마모토현 당국을 인용, 현재까지 분화로 인한 사망 또는 부상자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베 담화는 조선 주권 침해 사실 무시”

일본 역사학자 단체 ‘역사학연구회’ 비판 성명 “위안부 문제 책임 회피...독선적 역사인식 내보여”

일본의 대표적인 역사학자 단체인 역사학연구회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아베 담화·8월 14일 발표)에 대해 “조선의 주권을 침해한 사실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역사학연구회는 14일 연구회의 위원회 명의로 발표한 ‘전후 70년 총리 담화에 대한 성명’에서 “담화는 일본이 19세기 구미제국의 식민지가 되는데 대한 위기감 속에서 근대화를 이루고 독립을 지켰다고 하면서 조선의 주권을 침해하고 대만을 식민지화한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이어 “(담화가) 일러전쟁부터 20세기를 서술하면서 (일러전쟁이) 식민지 지배 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줬다고 일반적으로 평가하지만, 일러전쟁은 무엇보다 우선 만주 등 중국 동북부와 한반도의 지배권을 둘러싼 일본과 러시아의 전쟁으로, 주된 전장도 이들 지역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국주의적 야심을 가지고 전쟁터가 된 비(非) 당사국 사람들의 인권을 침해하면서 계속된 전쟁”이라며 “일러전쟁때 일본은 조선의 중립선언을 무시하고 서울을 제압한 뒤 일한 의정서

등을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연구회의 성명은 이어 “(담화는) 이러한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으므로 식민지 지배의 책임은 원래 구미(유럽과 미국)에 있다는 인상을 줬 일본 고유의 책임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2차대전에 이른 경위와 관련, 세계 공황 이후 서방 국가들의 경제 불복화로 타격을 받은 일본이 국제적으로 고립되자 힘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라는 담화 내용에 대해서도 “일본을 수동적 피해자 위치에 둔 채 자기 변호적으로 역사를 인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성명은 “담화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한 채 여성 일반의 전쟁피해 문제를 거론하는 것만으로 끝내고 있다”며 “이런 표현은

‘위안부’ 문제를 전쟁의 일반적인 문제로 취급해 일본 고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자세나 다르다”고 꼬집었다. 또 조선인과 중국인에 대한 강제연행, 포로와 일반 시민 학살 등의 구체적 가해 사례를 언급하지 않은 점도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명은 “이번 총리 담화의 기조는 독선적인 역사인식을 관철한 것”이라며 “아베 총리, 더 나아가서는 일본 정부의 불량한 식견을 국제사회에 보이는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 단체는 작년 10월 일본군에 의해 강제연행된 군위안부가 존재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고, 올해 5월 아베 정권의 군위안부 문제 왜곡 중단을 촉구하는 일본내 16개 역사·교육 단체의 성명 발표를 주도했다. /이종형기자golee@

독일 신부가 본 ‘1911년 한국’

베버 총원장 출간 ‘고요한 아침의 나라’ 원본 사진 13장 공개

독일 성 베네딕도회 상트 오티리엔 수도원의 노르베르트 베버(1870~1956) 총원장이 1915년 출간한 ‘고요한 아침의 나라’(Im Lande der Morgenstille) 초판에 사용된 원본 사진 13장이 처음으로 언론에 별도 묶음으로 공개됐다. 이 수도원 선교박물관의 한국관 큐레이터 역할을 하는 김영자(76) 레겐스부르크대학 박사는 지난 11일과 12일 박물관이 소장한 5만 점 가량의 우리나라 사진 중 이 책자에 사용된 사진 일부를 따로 모아 아카이브면서 원본 사진 스캔 파일을 제공

했다. 이들 사진은 학술 목적의 사진집 발간 같은 특별한 사업 과정에서 부분적으로 알려지거나 노출된 적이 있지만 책자 수록용으로 추려져 언론에 다수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15년 초판이 나온 ‘고요한 아침의 나라’(Im Lande der Morgenstille)는 원색사진 24장과 일반사진 279장 등 다양한 사진을 활용한 방대한 저서로서 2013년 한국어로도 번역돼 출판됐다. /연합뉴스



난민선 또 전복...34명 사망

그리스 해안 97명 생존...승선 인원은 파악 안돼

그리스 해안에서 13일(현지시간) 난민선이 전복돼 최소 34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그리스 뉴스통신 ANA가 보도했다. 숨진 난민 중에는 갓난아이가 4명과 어린이 11명도 포함돼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날 보도에 따르면 난민 130여명을 태운 선박이 그리스 에게해 파르마코니시 섬 인근 바다에서 전복됐다. 수색·구조작업에 나선 그리스 해양경비대는 현재까지 파악된 사망자수를 34명으로 밝혔다. 이와 68명을 바다에서 구조했으며 29명은 해염저 해안에 이르렀

다고 해경은 덧붙였다. 총 승선 인원이 정확히 몇 명이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ANA는 해당 선박이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으며 사고 해역의 강풍 탓에 배가 침몰했다고 전했다. 또한 해경은 전날 터키 해안에서 떨어진 그리스의 사모스 섬 인근에서도 난민들을 태운 선박이 전복돼 4명의 아이들이 실종됐다고 덧붙였다. 국제이주기구(IOM)에 따르면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지중해를 건너서 유럽에 유입된 난민은 35만 명을 넘어섰다. /연합뉴스

中 국유기업 통합 가속화

철도건설사 합병키로

중국의 국유기업 개혁안 발표 직후 철도건설 국유기업인 중국중철(中國中鐵)과 중철이국(中鐵二局)이 합병한다. 14일 홍콩 봉황망(鳳凰網)에 따르면 중국중철과 중국중철 자회사인 중철이국은 공시를 통해 자산합병 계획을 밝혔다. 중국중철은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 도시 설계건설을 주 사업으로 하는 국유기업이고 중철이국은 건축공정 시공, 부동산 개발 등의 사업을 벌여왔다. 중국철로 공정총공사에 소속된 중국중철은 중철이국의 지분을 100% 보유하며 겸직 지

배하고 있다. 이에 따라 두 기업은 이날부터 증시 거래가 정지됐다. 현재 중국은 양대 고속철도 국유기업인 남차(南車)와 북차(北車)의 통합을 통해 탄생한 중차(中車)의 증시 재상장을 앞두고 있다. 앞서 원자력 발전소 합병과 중국 양대 해운업계의 합병 소식도 이어졌다. 중국 정부는 ‘크고 강한’ 국유기업이라는 모토 아래 국유기업간 인수합병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13일 국무원이 발표한 국유기업 개혁 심화 지도의견에 따라 국유기업 합병작업은 더욱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FDA 품질인증
구운소금 추석 선물세트

소중한 분께 귀한 마음을 전하세요

2호세트 48,000원

3호세트 40,000원

4호세트 20,000원

상기 세트가격은 소비자가격 (택배비제외)입니다.
10세트 이상 선물구입은 전화주시면 공장도 가격으로 배송해 드립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0770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예약 | 황토참숯가마 한우&돼지갈비전문점
주문 | 참숯, 목초액, 구운소금

참숯가마

9월 21일부터 24시간 OPEN!!

- ▶ 불베는 날 화, 목, 토, 일
- ▶ 다량의 원적외선과 좌훈으로 힐링
- ▶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맛의향연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품격있는 모임은 1+ 이상의 한우암소
- 부담없는 외식은 참숯 직화구이 돼지갈비(국내산)
 -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50% 할인
 - ▶ 주말 및 연말연시 모임은 사전예약으로 차질없게

사전예약시 ▶ 12인승, 25인승 차량 무료운행 / 컨퍼런스룸, 족구장 무료이용 가능